

패러디 기법으로 풍자한 성서의 기적사건

보리슬라프 패키치 지음 「기적의 시간」

우리는 남이 써놓은 것을 우스꽝스럽게 비틀거나 과장함으로써 색다른 즐거움을 얻곤 한다. 문학적 기법 중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패러디'다. 이 패러디기법을 사용한 작품이 유고슬라비아출신의 작가 보리슬라프 패키치가 쓴 「기적의 시간」이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 중에서 이른바 共觀 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기적사건의 뒷면을 가상하여 풍자적이면서도 때로는 아주 유머러스하게 사건을 전개시키고 있다.

작가는 "... 지금 있는 것은 언젠가 있었던 것이요. 지금 생긴 일은 언젠가 있었던 일이라. 하늘아래 새것이 있을 리 없다"라는 「전도서」의 한 구절을 머리말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소설이 씌어지게 된 근거가 되고 있다.

이 소설의 도입부는 나자렛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다음과 같은 회상으로 시작된다. "내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적도, 그분이 배푸신 수많은 기적, 가령 병어리의 혀를 풀어주시고, 미친 자의 정신을 돌려주시는 등의 기적이 아닙니다. 혀를 풀면 고자질하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배신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생길 뿐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면 호기심이 많은 자, 그래서 첩자 노릇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 생길 뿐이요, ...그런 기적은 수제자를 회심하게 한 것은 좋으나 구경꾼들에게는 하느님을 믿는 대신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행한 기적이 그 기적의 수혜자들에게 결코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그들로 하여금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게 함으로써 얼핏 보면 예수의 기적행위를 비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예수의 기적을 인정할 상태에서 얘기가 성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濟神의 문학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초점을 기적의 수혜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나병에 걸림으로써 남편과 헤어져 부정한 성읍에서 똑같은 나병환자인 새 남편을 맞이해 행복하게 살던 한 여인이 예수의 기적을 만나 깨끗한 사람이 되지만 이 여인은 정결한 성읍과 부정한 성읍 그 어느 곳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추방당하고 만다. 말뚝하던 병어리가 말뚝이 트이자마자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로마를 타도하자"는 엄청난 말이어서 그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난 뒤 추악한 세상을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만 자신의 두 눈을 파내버리고 만다. 또한 자기들만의 세계속에서 평화롭게 살던 미치광이들이 이성을 되찾게 되자 서로 다투게 되고 결국엔 돌에 맞아 죽고 만다.

작가는 기적의 객체인 이들이 기적을 통해 받게 되는 인간적인 고통과 불행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어 마치 우리가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에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특히 「베다니아의 기적」에서 부활한 라자로가 겪게 되는 갈등과, 「힌놈의 죽음」에서 '예언의 노예' 가리웃 유다가 자신에게 돌아온 예언의 완성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은 진정 인간적으로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역자의 깔끔한 번역문체가 돋보이는데, 존대형을 사용함으로써 소설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화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듯한 효과를 내고 있다.

최성우

서울 강서구 화곡5동 82-6

「시간 속의 도적」

이 소설에 대한 내 첫번째 독후감은, 미래 소설에 대한 조심스런 기대이다. 문학이 점점 생활의 변두리로 밀려나가는 요즘, 추리소설이나 과학소설을 종전의 편협한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새롭고 맛있는 책읽기를 선보일 수 있는 대안으로 긍정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두뇌에 지적 자극을 제공하는 오락적 기능뿐만 아니라, 그 재미 속에 무거운 주제까지 잘 녹일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역사의 뒷골목에 사는 사내들이 미래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혁명에 대한 이야기이며, 동시에 현재의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이다. 광우항쟁이라는 치유되지 못한 과거의 아픔이 '새로운 호남'이라는 미래의 문체와 부딪치면서 보내는 전언은, 비단 독일식 흡수통합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세기말의 종교적 광신과 그저 소비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듯한 향락과 쾌락의 로데오 경기장인 우리 시대에 대한 지적이기에 가슴 뜨끔하지 않을 수 없다.

장윤, 은지 등이 사건을 저질러버린 후 얻는

편안함은 광주라는 무거운 짓눌림으로부터의 해방을 얻었음을 의미하지만, 기준의 경우는 그래서 다른 것이다. 그는 사건의 실행과정에서 무기력하고 안이한 삶, 쾌락에 젖어 은둔하던 자아에서 깨어나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과 감동적으로 만나게 되고, 정말로 역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물이 되는 것이다.

소설은 기준과 장윤이 수감되고 은지가 면회를 와서 바깥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은지는 무지개후회회, 구명운동 등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하지만 그 바깥세상은 '약이며 술이며 섹스며 그것들이 한데 어우러진 향연과 같은 진짜 쾌락의 도구들'에 마취당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들의 계획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후회회는 얼마나 많은 회원을 확보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너무 빨리 그들의 일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최면당할 수 있는 조건은 얼마든지 널려 있으니 말이다.

사건의 승패가 궁금한 것은, 그 일의 파장이 미래의 파멸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그 싸움이, 바로 오늘의, 이 자리에서의, 우리가 벌이는, 벌여야 할 싸움과 너무도 닮았기 때문이다.

김은하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교동 현대APT 120-805

「그대 다시는 고향에 ...」

세계시문학사상 고향을 노래하는 빈도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라고 한다. 임의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경우나 더 나은 삶, 유학 등의 목적으로 우리 민족은 수없이 고향을 떠난 역사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민족만큼 고향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는 민족도 없다. 흠냄새를 그리워하는 농경민족의 정서가 곧 향수이리라.

나 또한 고향을 떠나 서울로 유학왔고 이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명절때를 제외하곤 고향을 그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와같은 정서와는 다르지만 서구문학 중에서 '고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은 쉽게 읽힌다. 순전히 제목이 불러일으킨 향수 덕택이리라. 토마스 울프의 소설인 이 작품은 1929년 경제대공황을 배경으로 우연하게도 고향을 찾아가는 28세의 젊은이를 다루고 있다. 그는

뉴욕에 가서 사랑과 명예와 재물을 얻겠노라고 결심했고 이제 그것이 눈앞에 있다고 확실히 느끼고 있다. 이모의 죽음으로 인해 수년만에 가는 고향.

가는 도중, 그곳에 가서 정든 사물에게서 시간이 가져다준 변화를 보았고 그곳에 도착해 고향을 잃어버렸다고 느낀다. 공황 직전시대의 흥분, 즉 일시적인 호경기로 들떠 있는 고향의 부동산열풍을 목격하면서 절박한 파멸을 기다리는 마을이 바로 유년의 기억속의 고향이었던 것이다.

「그대 다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은 그에게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즉 성인으로서 그는 다시는 고향으로, 가족의 품으로, 어린 시절로, 낭만적인 사람으로, 영광과 명예에 대한 청년시절의 꿈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예술가'의 이상과, 시간과 기억의 도피처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고향은 우리의 향토색 짙은 '향수'의 대상을 벗어나고 있다. 파괴되어지는 고향과 상실해가는 인간성을 딛고 더 위대한 지식, 더 위대한 삶, 더 위대한 사랑을 찾아나가면서 우리 자신, 인간본연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 소설이 우리의 '고향'과는 다른 차원의 감동과 메시지를 주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그래서 그를 20세기 미국과 미국사회를 고향을 통해 진단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박명기

서울 구로구 시흥본동 879-71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늦은 나이에 만나 겨우 4일간의 사랑을 했지만 죽을 때까지 서로를 잊지 못하는 아름답고 순수한 얘기가 있다.

'나홀동안, 그는 내게 인생을, 우주를 주었고, 조각난 내 부분들을 온전한 하나로 만들어 주었어. 나는 한순간도 그에 대한 생각을 멈춘 적이 없단다. ... 하지만 그런 것이, 너희 둘이나 너희 아버지에게 대해 내가 느끼는 무엇을 빼앗아가지는 않았단다.'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다리에 화상한 재를 뿌리고 돌아온 남매가 발견한 유서내용이다. 어머니는 사랑했던 사람인 키키케이드를 따라 그들이 만난 그 다리에 재로 뿌려졌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 보내왔던 카메라들과 일기장 세

권을 같이 남겼다. 그녀는 그와 자신의 20여 년간에 걸친 사랑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털어 놓는다. 그러나 그녀의 가족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 때문에 그와 떠나지 못했음도 고백한다.

어릴 적 꿈꾸던 생활이 아닌 지겨운 삶. 낭만도, 에로티시즘도, 촛불밝힌 부엌에서 춤을 추는 것도, 여자를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남자의 멋진 감정도 없는 곳에서의 생활. 어머니는 딱 4일, 일생 중에서 4일을 한 남자를 통해 그것을 뛰어넘고 인생을, 우주를 발견한 것이다.

지붕이 덮인 다리들을 찍으러 매디슨카운티에 온 사진작가 키펬이드는 신비스러운 마법사다. 그녀의 마음 속에 숨어있었던 또하나의 '나'를 비로소 눈뜨게 해주었고, 어떤 얽매임도 없이 순수하게 사랑해주었다.

그들은 연락없이 22년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추억 속의 사랑을 가슴에 소중히 간직하며 죽어간다.

이 소설은 미국의 아이오아주의 촌부와 사진작가의 지고지순한 사랑애기다. '제2의 러브스토리'란 찬사에 걸맞게 신뢰가 상실되고 사랑에 편리성이 끼어든 현대미국인에게 큰 반향을 던지고 있다 한다.

즉 미국인들에게서 종래 잘 찾아보기 힘든 요소들—단 4일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평생을 살 수 있다는 것, 평범한 시골여자라 사진작가의 사랑, 가족의 파탄은 막으려는 것—이 미국인을 열광케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찬사와 열광은 미국사회의 가정과 사랑의 위기에 대한 역설은 아닌지.

그러나 이 소설을 굳이 미국식으로 읽을 필요는 없다. 세속적인 탐욕과 집착, 꿈의 상실과 비인간화 등으로 둘러싸인 현대인 모두에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는 언제나 추앙받아야 하며 가장 매력적인 주제이므로.

성기애

서울 송파구 삼전동 26-11

「흰 뱀을 찾아서」

제목이 주는 이미지가 하도 강해 읽기 전부터 어떤 선입견이나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 있다. 제17회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흰뱀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 제목

으로 쓰였고 왜 그것을 찾아나서는 것인지 좀체로 짐작이 가지 않았다. 흑 뱀장수애기 아니면 화류계 소설? 이렇게 엉뚱한 상상까지 했던 것이다.

그 의문은 몇장 안넘겨서 곧 풀렸다. 무당집에서 듣게 되는 흰뱀의 허물로 지어만든 옷을 입고 있다는 죽은 언니에 대한 점괘, 소설 속에 이어지는 흰뱀—언니뱀을 고치기 위해 앞산 너머로 잡으러나서는—이야기에서. 즉 흰뱀이란 어린시절에 죽은 사촌언니의 이야기이며 주인공의 성장과정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흰뱀은 역사이다. 어린 아이들이 흔히 등장하는 6·25소설에서 동심의 눈으로 이해 못할 동족상잔의 비극을 묘사하는 것같이 흰뱀은 어린아이의 성장기에서 간접체험하게 되는 비극적 역사이다.

이 소설에서는 주홍산 밑 한 마을의 집단학살극—국군에 의한 양민학살—에서 생존한 몇 사람 중 하나인 민자언니의 비극적 생애를 다룬다. 물론 소설은 구체적인 역사에서 벗어나와 민자언니의 후유증과 죽음이 가족에게 미친 한 시기—주인공의 성장기—를 다루고 있다. 유년 성장소설적 작품인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의 또다른 강점은 역사의 직접체험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60년 이후 세대의 작품답게 성장의 체험이 어느 정도 연속성을 띠며 고스란히 추억으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산골의 마을풍경과 누에치기, 감자캐기, 우렁이잡기, 곡식망치는 산짐승쫓기, 뱀술담그기, 앞산 너머의 흰뱀과 기차 기적소리에 대한 꿈 등 그 추억들은 활달하게 소설의 긴장을 풀고 상상력을 발휘한다.

한편, 순수하고 소박한 동심의 세계 그대로 역사의 아픈 생체기라도 넉넉히 이겨낼 만한 소설적 진실이 주는 감동이 있다. 흰뱀을 잡으러 갔는데 오히려 언니아이를 죽이게 했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과 분함, 새마을운동에 대한 백일장에서 죽은 언니애기를 써 아버지를 간첩으로 몰리다시피해 초죽음당하게 한 후 다시는 글을 쓰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흰뱀을 찾아나서되 순수하게 찾아나서기. 그것은 역사의 간접체험세대가 갖는 가능성이 자 한계이다. 그러나 가벼움과 모방에 경도된 세대에 이 소설은 진지하고도 순수한 감동을 던져준다.

박세연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동명빌라 203호

헵시바

많은 뜻을
담고있는 이름입니다
많은 일을
도모하는 일터입니다
많은 유익을
드리는 동반자입니다

디스켓을 주시면 이런 서비스가...

시, 소설, 수필 등의 문학작품류와 일반단체본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새로운 출판문화의 창출!
이것은 바로 헵시바의 바램입니다.
이 바램을 이루기 위해 저희는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첫 열매로서
단체본 출판의 경우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서비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출판문화인 여러분!
새로운 출판문화의 창출에
동참하지 않으시렵니까!

디스켓 불량일 경우 제공되는 자동교정 서비스

- 사이시옷 (화제거리→화짚거리, 황토길→황뚝길 등)
- 된소리 (홀죽→홀쭉, 훈구멍→훈꾸멍, 혈덕→혈뚝 등)
- 부사형 어미 '이', '히' 구분 (조옹이→조옹히, 깨끗히→깨끗이 등)
- 빈도수가 높은 외래어 처리 (앰블런스→앰블런스, 코오피→커피 등)
- 변칙 (젓어→저어, 담그어라→담가라, 가르어→갈라, 반가웠다→반기웠다 등)
- 보조어간 '이', '히' 용법 (높히다→높이다, 덮히다→덮이다 등)
- 어간 끝 'ㄹ'의 생략 (빌읍시다→빽시다, 살을수록→살수록 등)
- '렬'·'열', '률'·'율' 용법 (분렬→분열, 합격률→합격을 등)
- 어미 뒤 조사 '요' (하리오마는→하리오마는, 하지오마는→하지오마는 등)
- 지시대명사의 띄어쓰기 (이것, 그후, 그쪽, 그중 등)
- 기타

디스켓 불량 처리의 특장(特長)

- ▶ 신속성—단체본 300쪽 분량의 경우 통상 1-2일 안에 처리해 드립니다.
- ▶ 정확성—컨버전할 때 내용이 누락되거나 바뀌는 등의 오류가 없습니다.
- ▶ 경제성—헵시바한글다듬기를 서비스하면서도 일반 디스켓 불량과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정 시간과 교정 비용 대부분이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오타교정, 책임교정, 편집대행도 해드립니다.)

- 헵시바한글다듬기 • 테이터분석을 통한 압축교정 • 전집류의 용어통일 작업 • 외국어 교정 등, 저희가 개발한 이상의 아이템들이 귀사의 발전에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서울 중구 초동 155-1 덕양빌딩 603호 헵시바 ☎ 265-9240~1. Fax : 263-1992

여기 전산사식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곳이 있습니다